

광주시, '청년 일경험드림-드림만남의 날' 개최

오늘부터 16일까지 시청 1층서 300여 사업장 상담·면접 등 진행 8월부터 최대 5개월 일경험 제공 "실무중심 경험으로 경쟁력 확보"

광주광역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장(드림드림)과 구직

청년이 직접 만나 직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자리다. '드림만남의 날'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주), 그린테크주식회사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300여개 드림드림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기관은 부스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직무 정보와 근무환경 등을 안내하고, 청년들과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행사장에서는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마련돼

청년들이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드림드림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선정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9만~270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6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올해 제18기 드림청년 모집 규모는 총 40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이날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4일 광주청년통합

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8월1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으로 나아가는 취업 디딤돌 사업"이라며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력 채용이 확산되는 고용환경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시 "여름철 약수터 이용 조심하세요"

총대장균 등 미생물 번식 왕성 음용 자제·손 씻는 용도로 활용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을 맞아 산행이나 야외활동 시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지칭한다.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약수터(청풍습터·산장광장·증심사 입구 등 3개소), 남구대 각사 약수터, 광산구 용진 약수터, 산정 약수터 등 총 6곳의 약수터를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연 4회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하절기(7월~9월)에는 월 2회 검사하는 등 연 12회 실시하고 있다. 먹는물 공동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음수대 게시판에 게재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단, 수질검사 결

과 '적합' 판정이 나온 곳이라도 하절기에는 총대장균 등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고 비로 인해 수질이 급변할 수 있어 마시는 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손을 씻거나 가볍게 물을 씻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지역 먹는물 공동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시설당 총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등산 국립공원 약수터 3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청풍습터는 6회, 산장광장은 2회, 증심사입구는 1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항목은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으로 조사됐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는물 공동시설은 염소계통의 소독을 하지 않아 소독제의 잔류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여름철 먹는물로는 주의해야 한다"며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끓인물이나 먹는샘물을 휴대하고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국제농업박람회 가고 전남 관광지 할인받으세요"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2025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 행사 기간 중 전남 관광지 입장 할인을 적용한다.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나주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미래 농업의 비전과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는 박람회 기간 중 도내 주요 관광지를 최대 50% 할인된 입장료로 방문할 수 있다. 할인 입장 가능한 곳은 여수해상케이블카, 나주 황토돛배체험, 구례 수목원, 해남 산이정

원, 진도 윤림삼방 등 전남에서 사랑받는 인기 유료 관광시설 27곳이다. 입장권 온라인 구매는 네이버나 인터파크에 국제농업박람회를 검색해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구매는 박람회 사무국이나 박람회 기간 대표소에서 가능하다. 입장권 가격은 사전예매권 기준 일반권 7000원(현장판매 1만 원), 청소년권 6000원(7000원), 어린이권 2000원(3000원)이며,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상당의 쿠폰(어린이 제외)도 제공된다. 주요 관광지 할인 사항은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www.i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농업기술센터, 우리밀 요리체험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밀을 활용한 요리체험인 '지역농산물 활용 가치 공감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밀을 활용한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체험 교육으로 가족 간 소통을 꾀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농산물을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월5~1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1층 생활문화교육관에서 총 6차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지역농산물 우리밀 탐구 △우리밀 4색 두부 과자 만들기(1·5

기) △떠먹는 블루베리 우리밀 스콘(2·6기) △우리밀 피자빵 만들기(3·4·7기) 등 체험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접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들이 강사로 나서 도시와 농촌 간 소통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광주 시민 48가족(기수별 8가족, 가족당 2~4명)이다. 21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바로예약'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교육마당-교육안내를 참조하거나 윙복합지원팀(062-613-5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이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정책세미나 행사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모색

원유·별크화물 특화 '산업 연계' 특화 조성·수출입 중계 기지화 전남도는 지난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역할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해운항만·산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초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서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여수·광양항은 원유와 별크화물 처리에 특화된 항만으로 북극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성이 높아 다른 항만과 차별화된 역할이 가능하다는 감정이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북극항로를 운항한 선박의 99%가 원유, LNG, 철광석 등 비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운항되는 점을 감안,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와의 산업적 연계성이 높아 물류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세미나에선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으로 △원유·별크화물 중심 북극항로 개척항만 육성 △LNG 해상 병커링 특화항만 조성 △에너지 자원을 비축·유통하는 수출입 중계 기지화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다. 지난 2013년 10월 국적선사 최초 현대 글로벌비에서 러시아 오스트루가항-광양

항을 나프타 4만3838톤을 운송하며 북극항로를 활용한 운항사례는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물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광양항은 원유, 광물 등 특수화물 운송에 강점을 가진 항만으로, 북극 자원과 연계한 물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여수·광양항을 새정부의 북극항로 시대를 이끌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8월1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제2차 북극항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필요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남성보다 임금 낮아

광주시, 20개 기관 임금실태 분석 평균 12%↓...군복무 등 복합 작용 광주광역시는 지역 출자·출연기관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광주시 누리집에 공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 구조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민간부문

까지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성별 간 임금 차이를 수치로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분석 결과, 20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2260명 중 여성은 665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연간 1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광주교통공사(29.7%), 광

주테크노파크(22.2%) 등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차이는 △상위직급에 남성 인력이 집중된 인사 구조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차이 등 복합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이번 분석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명시적인 임금 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2년마다 성별임금 현황을 지속 공시해 불합리한 요소를 식별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이 기자